

# The Study on Regional Linkage Characteristics of Elderly Facilities in Aichi Prefecture, Japan

일본 노인시설에서 나타나는 지역연계특성에 관한 연구

- 아이치현(愛知県)지역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

Ko, Sang-Kyun\* 고상균 | Shim, Dae-Young\*\* 심대영

## Abstract

**Purpose:** While Japan undergoes super aged society, Japanese Elderly Facilities are trying to keep elderly residents from social isolation and expand regional interac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linkage characteristics through 8 cases of Aichi-Elderly Facilities which realize regional interaction and symbiosis(life together) between various generations by visiting.

**Result:** 1) Most researched facilities except SO provide and share opportunity for interaction with community and residents through space for regional interaction including cafe and various programs and interactive settings. 2) The facility which seeks regional linkage through Mixed-use of facilities can divide into ①Mixed-use of facilities easy to found, ② Addition of housing function (NM, SM, DM) and ③ Mixed-use with different facilities(HY, GM) 3)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and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are ① to adopt concept of life together to have interaction possibility with young generation and children: most studied facilities except SO ② to establish elderly residence into facility to have interaction(FE, SM, GM) or place family room or single room into elderly residence (NM, DM, BN) ③ to disperse small facilities into community (FE) or facility or community realizing symbiosis through various facility arrangement (SM, GM). 4) Therefore, this study can categorize ①Program network, ②Temporary interaction, ③Symbiosis residence, ④ Symbiosis commun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which regional linkage has. **Implication:** Regional Linkage is an important concept to improve social interaction in community-based facilities. It is a thought-provoking concept to Korean elderly facilities because Korean facilities are still far from a city and in isolated environment.

**Keywords** Regional Linkage, Ageing in Place,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Mixed-use

**주 제 어** 지역연계, 지역거주, 다세대공생, 복합화

## 1. Introduction

### 1-1. Background and Objective

저출산과 함께 사상 초유의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일본의 노인시설은 그동안 제도 및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시행

착오를 겪으며 변화·발전하여 왔고, 최근은 시설서비스비용의 과다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주택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더 이상의 시설확장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즉, 그동안 시설서

\* Professor,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Primary author: kosk@cku.ac.kr)

\*\* Professor,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dyng@cku.ac.kr)

1) 일본의 노인인구는 1995년 14.6%, 2005년 20.2%, 2015년 26.8%, 2030년 31.6%로 세계최고의 고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総務省 및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将来推計人口(2012)」). 또한, 서비스의 종류별 비용은 재택서비스 약49%, 지역밀착형서비스 약 11%, 시설서비스 약35%를 차지하고 있다(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2013).

비스의 중심인 특별양호노인홈의 신규건립을 제한하고 새로운 노인주거(그룹홈, 케어하우스<sup>2)</sup> 및 고령자지향우량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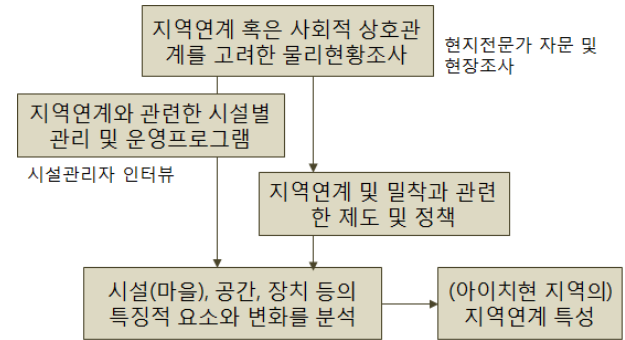
이 같은 배경을 중심으로 시설은 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e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시설거주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에서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역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시설이든 주거든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역과 공유하고 개방하는 등의 관계형성은 더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거주노인 및 시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共生)을 타지역에 비해 다양하게 실현하고 있는 아이치현(愛知県)지역의 사례를 통해 거주노인 및 지역과의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 시설 및 공간, 장치 등의 다양한 요소와 변화특성을 통해 지역연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시설환경 및 복지정책을 고려할 때 지역에 밀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시설사례를 통해 그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 1-2.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일본의 중부지방인 아이치현(愛知県)에서 지역연계를 다양하게 실현하고 있는 8곳의 시설 및 마을(나고야名古屋市·도카이시東海市·니시오시西尾市·오오가키시大垣市에 위치하는 4곳의 시설과 아이치군愛知郡에 위치하는 4곳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설은 지역연계를 주제로 하여 현지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설의 대부분은 복합시설 혹은 여러 개의 시설군 및 마을개념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따라서 그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정량적 방법보다는 각 시설의 다양성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각 시설의 평면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하였고, 문헌자료를 통해 일본 노인복지의 정책방향 및 제도와의 관련성과 그 배경을 파악하였다.

2) 케어하우스는 「경비노인홈 C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노인홈은 A형·B형·C형의 3종류이며 1989년 케어하우스 도입이후 1990년 이후는 A·B형 모두 신규개설이 없다. 가정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환경으로 최저한의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휠체어 생활도 가능하고 식사 및 입욕, 개호서비스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정환경 및 경제상황 등의 이유에 의해 가족과의 동거가 곤란한 사람을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형」으로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



[Figure 1] Flow of Research

노인시설은 제도 및 정책방향에 따라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건축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시설이다. 그러나 본 조사 및 분석에서는 제도와의 관련성은 그 배경으로만 이해하고 지역연계 혹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시설(마을), 공간, 장치 요소를 파악하고 시설의 변화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역연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Japanese Policy and System for Ageing

### 2-1. Revise of Care Insurance and Ageing in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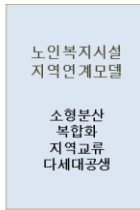
#### 1) Change after Arrival of Care Insurance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집단수용에서 소그룹개호, 가족 및 시설 중심에서 지역 및 주거, 관리중심에서 사용자중심, 시설에서 완결되는 개호에서 지역 및 가정과의 연계중시 등 노인복지정책의 개념적인 변화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1참조)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최근의 노인복지정책 및 개호보험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sup>3)</sup>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개호자의 거주를 시설에서 주택중심으로 변경하고 고령자주거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시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계획개념 및 역할로 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e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사회적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연계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다세대공생의 개념은 저출산 및 핵가족화, 초고령사회와 함께 지역 및 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회모델로 시설 및 노인주거에서도 사회적 상호관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주노인들의 제한적인 단조로운 생활패턴에

3) 2011년 개호보험법개정(2012년 시행,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厚生労働省, 2013)에서는 고령자가 지역에서 자립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서비스가 단절없이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지향하는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와 개호의 연계강화」, 「개호인재의 확보와 서비스질의 향상」, 「고령자주거의 정비등」, 「인지증대책의 추진」, 「보험자에 따른 주체적인 대응의 추진」 등이다.

서 다소간의 활기를 찾고 익숙한 지역에서의 일상성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이전	2003년 이후
집단개호	소그룹개호
가족, 시설	지역, 주거
Formal, 관리중심, 양적 충족	Informal, 사용자중심, 질적 향상
관리규범, 규칙	사회적 관계중시, 자율적인 일상생활
시설에서 완결	지역 및 가정과의 연계를 중시
이행에 따른 환경적응	입소 전·후 생활의 연속



[Figure 2] Change of Facility Concept after Arrival of Care Insurance

## 2) Constructs of Ageing in Place

일본의 노인시설은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와 함께 짧은 기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발전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은 계속되었고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부양의 부재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이런 반면 노인들은 그동안 생활해 왔던 친숙하고 익숙한 지역에서의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복잡한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키워드 「주택」과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되고 접근이다.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허약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대로 현재의 주거에 계속 살고 싶다 37.9%」, 「개조해서 생활하기 용이하게 하여 살고 싶다 24.9%」로 답하고 있고, 많은 고령자가 현재의 주거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sup>4)</sup>이 명확히 되고 있다.

지역거주(Ageing in Place)는 「시설」의 반대개념으로 「익숙한 환경에서 나이들어 간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답게 마지막까지」로 해석되고 있다. 「고령자의 자택·지역에 머물고 싶다는 근원적인 바람에 따라 허약함에도 고령자가 존엄을 확보하고 자립해서 자택·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에의 안이한 입소를 피하기 위해서 주목되어 온 개념이고 시설입소를 늦추거나 피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마쓰오카(松岡洋子)는 아래의 4가지를 지역거주의 구성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① 고령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

② 「자택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근원적인 바람에 따라 「지역에 계속 살 수 있을 것」, 즉 마지막까지 지역에서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

③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추어 주거의 요소와 케어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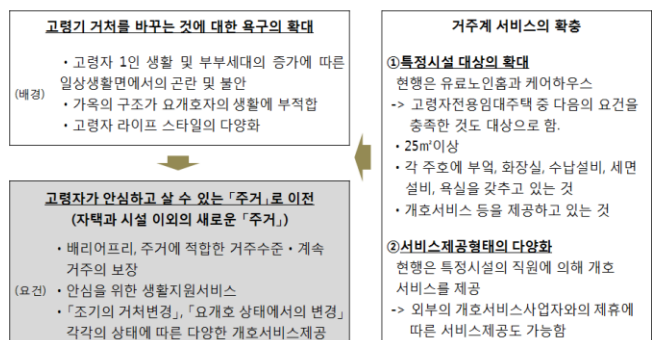
④ 근린 및 커뮤니티의 과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Houben(2001)은 주거와 케어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안된다하고 고령자주택에 내재화된 서비스로 주택을 시설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케어는 주택에 붙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공하여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전제라 하였다.<sup>6)</sup> 따라서 건물에 방문개호 및 방문간호스테이션,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업소는 지역을 향해 열린회로를 만들고, 지역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에 따라 고령자주택이 지역의 일부가 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주택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에 부합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2-2. The Elderly Residence and Expansion of Areal Service

### 1) Expansion of New Residence

지역거주를 지원하는 주거로서 자택이라는 이해가 강하지만, 최근의 연구 혹은 제도에서도 자택보다도 잘 설계된 새로운 주거(케어하우스, 고령자지향우량임대주택 등)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 참조).<sup>7)</sup>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기존의 주택개선지원과 함께 고령자주거를 정비하고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로 조기에 거처를 변경하거나 요개호(要介護) 상태에서의 변경 등에 따른 다양한 개호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의 요건은 배리어프리, 주거에 적합한 거주수준 및 계속거주의 보장, 안심을 위한 생활지원서비스, 조기의 거처변경 혹은 요개호 상태에서의 변경 등 각각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개호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Figure 3] Expansion of Care for Special Facility Resident

### 2) Expansion of Areal Service

요개호자가 받을 수 있는 개호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방문간호 및 주간보호서비스 같은 「재

4) 「高齢者の住まいと生活環境に関する意識調査結果」, 内閣府, 2005.  
 5) Ageing in Place(地域居住)と高齢者住宅-日本とデンマークの実証的比較研究, p26, 松岡洋子、新評論、2011.

6) Ageing in Placeと高齢者住宅, p47.  
 7) 高齢者福祉施策の現状と動向, 厚生労働省老健局, 2008.

택서비스」. 둘째는 개호복지시설 및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개호보험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밀착형서비스」<sup>8)</sup>이다.

2006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개호서비스의 종류이다.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정촌(市町村) 레벨에서 보면 고령화율 및 고령자시설의 상황 등이 크게 다르다. 그래서 지역의 니즈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시정촌(市町村) 독자적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밀착형서비스가 탄생했다. 즉, 고령자가 중도(重度)의 요개호상태가 되더라도 가능한 익숙한 자택 또는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이 적당한 서비스종류로 만들어졌다.

지역밀착형서비스의 특징으로는 ①서비스사업자의 지정은 시정촌(市町村)이 시행하고, ②원칙적으로 지정을 한 시정촌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③지역주민과 교류가능한 입지에 소재하고 있고, ④서비스종류에 따르지만 월액 포괄서비스도 많고, 유연한 서비스제공, 얼굴이 익숙한 직원에 의한 연속적 개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able 1] Types of Care Service**

시정촌(市町村)이 지정·감독을 행하는 서비스	도도부현(都道府県)·중핵시(中核市)가 지정·감독을 행하는 서비스
<b>◎지역밀착형서비스</b> · 장기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간호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중대응형 동소개호 ·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 인지중대응형 공동생활개호(Group Home)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거자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 입소자생활개호 · 특별형서비스	<b>◎재택서비스</b> 【방문서비스】 · 방문개호(Home Help Service)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Rehabilitation · 거택요양관리지도 ·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 특정복지용구판매 【홍소서비스】 · 홍소개호(Day Service) · 홍소Rehabilitation 【단기입소서비스】 · 단기입소생활개호(Short Stay) · 단기입소요양개호 · 복지용구대여 <b>◎시설서비스</b> · 개호노인복지시설 · 개호노인보건시설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또, 인원기준 및 시설기준, 개호보수설정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촌(市町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에 제창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따라 지자체에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 3. Characteristics of Researched Areal Facility

#### 3-1. Outline of Researched Facility

일본의 노인시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발전하여왔다. 그 과정에도 고령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제들을 줄여가려는 노력과 함께 시설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시설도 지역과의 관계강화와 함께

역할을 확대하고 공생사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과의 교류 및 관계강화와 함께 시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치현(愛知県)에 있는 8곳의 우수시설을 지역연계를 주제로 하여 방문 조사 하였으며 조사시설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Table 2] Outline of Researched Facility**

	시설명	지역	시설내용
1	플라워엔(FE)	名古屋市	케어하우스(30명), 주간보호(35명), 특별양호노인홈(유니트형 20명과 단기입소10명)
2	논비리무라(NM)	東海市	그룹홈(9명), 소규모다기능홈(단기체류 5명, 주간보호15명 이하), 다세대공생주택(케어하우스18명·가족실1실포함)
3	센넨무라(SM)	西尾市	특별양호노인홈(80명), 단기체류(20명), 주간보호(30명/일), 케어하우스(15명), 지역포괄지원센터, 방문스테이션
4	썬빌리지오오가키(SO)	大垣市	특별양호노인홈(단기체류포함 21명), 그룹홈(6명), 주간보호(12명)
5	다이타이무라(DM)	愛知郡	특별양호노인홈(단기체류포함 39명), 그룹홈(18명), 단신용 숙소
6	그룹홈 하모니·요리미찌(HY)	愛知郡	그룹홈 하모니(8명)·요리미찌(8명), 어린이집
7	보찌보찌나가야(BN)	愛知郡	노인주거(고령자13명), 가족실(2실) 및 단신용 숙소(여성 4실), 주간보호
8	고지카라무라(GM)	愛知郡	특별양호노인홈(80명), 단기체류(20명), 재가개호지원센터, 방문개호스테이션, 주간보호시설, 케어하우스(50명), 임대주택, 유치원, 복지전문학교, 전통민가 등

#### 3-2. Main Characteristics of Researched Facility

8곳의 조사시설에 대한 주요 물리·환경적 특징과 사회적 관계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요요소는 <표-3> <표-4>와 같다. 각 시설들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케일, 재료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시설의 일부는 지역에 개방 혹은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을 시설 혹은 마을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의 본문에서는 플라워엔은 FE, 논비리무라는 NM, 센넨무라는 SM, 썬빌리지 오오가키는 SO, 다이타이무라는 DM, 그룹홈 하모니·요리미찌는 HY, 보찌보찌나가야는 BN, 고지카라무라는 GM으로 표기한다.

8)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厚生労働省, 2013.

[Table 3] Arrangement and Floor Plan of Facilities

	배치 및 1층 평면	사진
FE	 <p>상 : 케어하우스 및 휴게공간 하 : 공원, 주간보호, 다실</p>	
NM	 <p>상 : 시서리관, 카페 하 : 가족실, 가족용 다락방</p>	
SO	 <p>상 : 시설외관, 주간보호 하 : 지역교류실, 생활공간</p>	
SM	 <p>상 : 시설외관, 중정 하 :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홀</p>	
DM	 <p>상 : 시설외관, 그룹홈 하 : 지역교류동, 독신자 숙소</p>	
HY	 <p>상 : 시설외관, 중정 하 : 중정, 그룹홈</p>	

	배치 및 1층 평면	사진
BN	 <p>상 : 시설외관, 주간보호 하 : 공생주거(가족실), 카페</p>	
GM	 <p>상 : 특별양호노인홈, 케어하우스 하 : 유치원, 민가</p>	

[Table 4] Main Characteristics of Researched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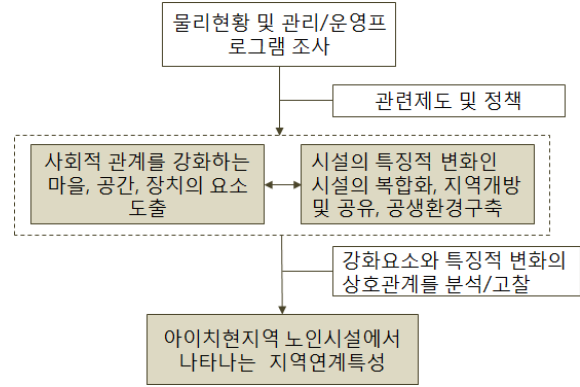
	시설의 물리적 특징	요소
FE	<p>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은 자연이 부족한 지역으로 부지에 조성한 자연숲을 통해 노인들과 직원,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및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기회를 모색함.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간보호와 케어하우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특별양호노인홈이 위치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상호보완적인 시설의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p>	<p>다실, 잡목공원</p>
NM	<p>다세대공생의 개념에 의해 조성된 복합시설로 각 건물이 형태, 색상 등에 있어 조금씩 다르게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지역에 있는 자연스런 마을을 형상화 함. 지역교류센터 및 카페, 식당은 마을에 개방하고, 케어하우스에는 가족실을 설치함. 지역밀착형시설인 소규모다기능시설과 그룹 홈을 부지에 병설하고 있음. 지역교류실의 일부는 야간은 단기체류, 주간은 휴게공간, 혹은 무대가 되기도 함.</p>	<p>교류센터, 카페, 식당, 농원, 공생주거</p>
SM	<p>주위의 풍경과 조화되고 지역의 사람들이 놀러오고 싶어지는 건축물 등을 목표로 건립됨. 중정은 지역의 주민 및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됨. 또한 이곳에서는 음악회 및 여름축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리고 있으며, 시설 내에 있는 다목적 홀은 지역의 행사 및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함. 시설은 외부공간에 의해 입체적으로 연결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의 모습을 고려함.</p>	<p>중정, 데크, 놀이터, 홀 등</p>
SO	<p>Satellite형 시설(외곽에 있던 시설을 베드수 감축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시설)로 단기입소 및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에 밀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려는 시설. 배식센터는 지역에 있는 법인시설들의 식사공급과 지역의 급식서비스의 센터역할을 담당하고 있음.</p>	<p>교류공간, 급식센터</p>

	시설의 물리적 특징	요소
DM	특별양호노인홈과 그룹홈이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설로 시설서비스 외에 단기체류와 다양한 지역교류공간(카페 및 공부방, 노천탕 및 족탕 등)을 설치하고 지역에 개방함. 그룹홈 2층에는 단신 거주자를 입주시켜 입주노인들과의 공생을 도모하고 있음. 그룹 홈의 리빙공간은 2채의 고민가 부재를 재활용하여 옛 가구(架構)를 재현하는 형태로 친숙함을 확보하고 있음.	카페 및 공부방, 노천탕 및 족탕, 공생 주거
HY	보육원(1-3세10명 정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그룹홈이 위치하며 외부공간을 보육원과 공유하는 개념의 시설. 거주노인들에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치(물품과 일)를 제공한다는 고려로 텃밭, 텃마루, 오픈공간, 노천탕, 가마솥, 데크 등과 언제나 아이들의 소리와 모습이 보여지는 것,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계획됨. 이는 노인들의 다소 여유로운 생활과 다양한 일상에의 참가 등 역할과 연계됨.	중정, 텃밭, 텃마루, 노천탕, 데크, 가마솥 등
BN	제도적으로 다세대공생주거의 건립이 용이하지 않아 기숙사로 인가받은 시설로 고령자거주공간(1층)과 가족 및 독신자용 거주공간(2층)을 중심으로 주간보호 및 커뮤니티카페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공생개념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있는 시설임. 고령자거주영역은 나가야(長屋-골목에 면해있는 전통적인 2층 목조연립주택)의 개념으로 통로(골목길)를 중심으로 13개의 거실이 위치하고 있고 2층에 거주하는 가족 및 독신자들에게는 저렴한 임대비를 통해 다세대교류 및 공동거주를 유도하고 있음.	카페, 마당, 공생 주거
GM	삶을 여유롭고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곳.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는 잡목림(雜木林)같은 커뮤니티를 지향함. 결코 편리하고 쾌적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나가 역할을 갖고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모두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 목표. 마찌쓰쿠리 성공사례로 거주노인들과 지역주민 혹은 어린이들과의 전통문화체험(민가), 체육활동 등으로 교류하고 여러 세대가 지역 속에서 공생하는 마을임. 특별양호 노인홈의 중정 및 후정에는 동물을 사육하고 있어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들 및 유치원생들의 방문을 유도함.	잡목 공원, 마을, 민가, 유치원, 공생 주거 등

### 3-3. Framework of Analysis

지역에서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혹은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각 시설별로 시설(마을), 공간, 장치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그들과 연계하여 시설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설구성 및 형식에서는 여러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을 정리하면 첫째, 제도적 과정 혹은 공생사회의 개념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시설의 복합화경향과, 둘째, 지역과의 교류기회의 확대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시설차원의 프로그램(지역의 소규모 집회 및 마을축제와의 연계 등)과 공유공간(공원, 중정, 놀이터, 교류센터, 카페, 공부방, 노천탕 등)의 설치, 셋째로 공생주거(가족실, 독신자 숙소, 다락방 등) 및 환경

의 도입은 조사시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변화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고찰하여 아이치현지역의 노인시설에서 나타나는 지역연계특성을 정리하였다.



[Figure 4] Framework of Analysis

## 4.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inkage

### 4-1. Mixed-use of Facility and Regional Interaction

#### 1) Characteristics of Mixed-use

노인시설에서의 복합화가 갖는 의미<sup>9)</sup>는 노인시설의 질적 정비(개호서비스의 네트워크, 익숙한 장소에서의 계속거주), 지역복지의 향상(복지서비스거점 만들기, 건강 및 활동지원, 보건복지활동 및 정보거점 만들기), 세대간의 교류촉진(지역과 교류, 아린이들과의 교류, 함께 생활) 등으로 설명된다. 즉, 노인시설이 갖는 단조로운 환경으로부터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거를 포함하여 타 지역시설과의 복합을 통해 노인거주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고자 검토·도입되고 있다.

본 조사시설에서 나타나는 복합화의 특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신규설치가 용이한 시설들의 복합(NM)** : 노인요양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의 과잉으로 인한 규제에 따라 비교적 신규설치가 용이한 시설(즉, 정책적으로 시설보급을 유도하는 시설 : 그룹홈, 케어하우스, 소규모다기능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생활서비스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시설에 주거를 병설(NM, SM, DM)** : 지역 및 사회적 상호관계가 차단된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시설에 다소 자립도가 높은 거주자가 생활하는 주거(케어하우스)를 병설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소자들 간의 상호관계도 향상되는

9) 建築計画·設計シリーズ15-高齢者複合施設, 浅沼由紀 外, 市ヶ谷出版社,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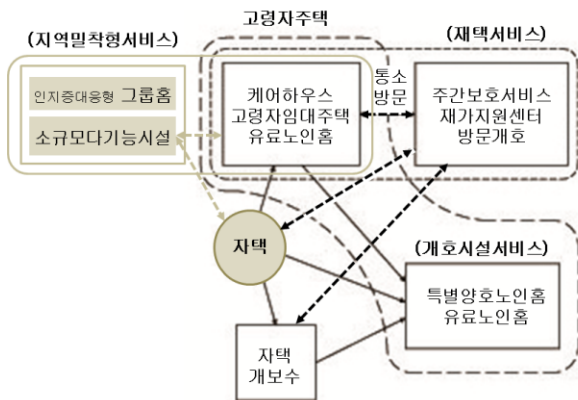
효과를 얻고 있다. 케어하우스 입주자들은 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한다.

③ **타시설(어린이시설)과의 복합(HY, GM) :** 어린이관련시설을 병설하거나 인접 설치하여 아이들의 소리나 활동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함께 생활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동장치를 설치하여 생활의 여유와 역할을 만들고 있다. 사례에 따라서는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등의 고려가 계획에 부가되기도 한다.

[Table 5] Characteristics about Mixed-use of Facility

	재가지원 방문서비스	주거	특양	그룹홈	주간 보호	지역 교류	유치원 어린이집
FE	-	○	○	-	○	-	
NM	○	○/△	-	○	○	○	
SM	○	○	○	-	○	○	
SO	○	-	○	○	○	○	
DM	○	△	○	○		-	
HY	-	-	-	○		-	○
BN	○	○/△	-	-	○	-	
GM	○	○	○	-	○	○	○

- △는 공생주거, 즉 가족실 및 단신용 숙소의 설치를 의미함.
- NM의 주간보호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의미함.
- 지역교류는 시설 내에 지역교류공간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함.



[Figure 5] Mixed-use between Elderly Facilities<sup>10)</sup>

## 2) Spaces and Settings for Regional Linkage and Interaction

사회적 관계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 공간, 장치의 요소들과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④ **교류를 위한 공간 :** 대부분의 시설들이 카페를 포함한 지역교류공간 혹은 지역교류동을 설치하여 회의 및 집회, 전

시 및 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SM의 다목적홀은 지역주민 및 입주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주1회 열리는 파티 등 이벤트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GM의 경우 전통민가는 100년 된 전통가옥을 옮겨놓아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케어하우스 및 임대주거)들이 유치원 및 인접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② **교류를 위한 다양한 장치 :** 야외공간을 포함하여 지역 및 시설거주노인들의 생활의 여유와 활동을 유도하는 장치로 시설별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지역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하게 하는 야외공간(중정, 숲)과 지역 어린이들의 방문을 이끄는 놀이시설, 또한 지역사람들과 입주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텃밭, 노천탕, 애완동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③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시설의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열리는 마을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행사, 동물사육 및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주거입주자들은 직접적인 참여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입소자들의 경우는 행사관람 혹은 부분적인 참여의 형식이다.

[Table 6] Spaces and Settings for Regional Linkage and Interaction

	지역교류 공간	지역연계장치	프로그램
FE	다실	지역에 열린 숲, 벤치 등	다도체험
NM	지역교류실, 카페, 식당	틔마루, 농원	마을이벤트, 텃밭 가꾸기 등
SM	다목적 홀, 공방, 미용실	중정, 잔디언덕, 어린이 캐빈 및 놀이시설	이벤트 및 주1회의 선술집파티, 음악회 및 마을축제 등
SO	지역교류실, 배식센터	-	-
DM	지역교류동(카페, 공부방 등)	노천탕 및 족탕, 애완동물, 가마솥 등	집회, 요리교실, 방과 후 교실, 동물사육(강아지, 고양이, 새, 토끼, 닭 등) 등
HY	-	데크, 텃밭, 모래터, 노천탕, 텃밭, 펌프, 가마솥 등	텃밭 가꾸기, 가마솥 밥 짓기 등
BN	지역교류실, 카페, 식당	야외정원, 놀이시설	계절행사, 어린이 재빵교실, 톨 페인팅교실, 라디오체조 등
GM	전통민가, 카페, 식당 등	지역에 열린 잡목 숲, 놀이시설	마을축제, 운동회, 전통문화체험, 동물사육(염소, 강아지 토끼, 닭 등) 등

10) 建築計画·設計シリーズ15-高齢者複合施設, 浅沼由紀 外, 市ヶ谷出版社, 2002.), p25를 재구성함.

## 4-2. Characteristics of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and Regional Linkage

### 1) Interaction and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공생사회의 개념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위한 대안으로 일본사회가 도입하고 있는 방향으로 시설에서는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다세대교류** : 젊은 세대 및 어린이들과의 교류가능성을 확보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반경이 좁고 활동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생활의 여유와 활력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설 및 마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로 SO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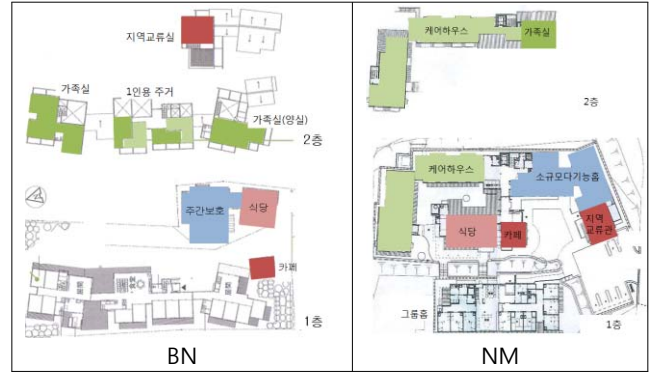
② **주거를 통한 공생** : 고령자주거인 케어하우스를 시설에 병설하여 자연스러운 교류기회를 확보하거나 고령자주거 및 그룹홈의 2층에 가족실 혹은 단신용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노인들만의 단조로운 생활환경에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공생(共生) 혹은 공거(共居)를 통해 지루함과 생활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형식(NM, DM, BN)이다.

③ **공생시설 및 마을** : 시설건립 초기부터 공생(사회)개념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시설구성을 계획한 사례로 지역 내에 소규모시설을 분산(FE)하거나 시설 혹은 마을 내에 노인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구성을 통해 공생을 실현하는 시설 혹은 마을(SM, GM)이다.

**[Table 7]**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and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주거외 교류시설	(공생)주거	특징
FE	-	케어하우스	공생마을. 지역에 시설분산
NM	-	케어하우스/ 가족실(2층)	케어하우스에 가족실을 병설하고 요양실에는 아이들의 방문을 고려한 다락방 설치
SM	캐빈 (놀이공간)	케어하우스	공생마을
SO	-	-	
DM	지역교류동	그룹홈/단신용 (남성)숙소(2층)	그룹홈 2층에 단신용 숙소를 설치, 생활공간과의 상호관계를 고려
HY	어린이집	-	같은 공간에서 생활(共居)
BN	-	노인주거/가족실, 단신용(여성) 숙소(2층)	노인주거 2층에 가족실2실과 단신용(여성)숙소4실을 설치하여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함
GM	유치원, 어린이집	케어하우스 분양 및 임대주택	공생마을. 여러 세대가 마을에 함께 거주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 및 교류

- 가족 및 단신주거자들이 노인주거 및 그룹 홈과 같은 출입구 및 리빙 공간, 세탁실 등의 생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공동거주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음.



**[Figure 6]** Examples of Symbiosis Residence

### 2) Categorization through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inkage

지역연계 및 공생은 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eing in Place)를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이 '시설'이 아닌 '주택'중심으로 방향이 결정되면서 지역에 밀착하고 있는 시설차원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본 조사를 통해 지역연계 및 다세대공생이 갖는 특성에 따라 조사시설을 분류하면 ① 생활 및 케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경이행(Relocation)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연계형, ② 일시적 혹은 제한적이라도 여러 세대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 교류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시적 교류형, ③ 가족실 혹은 단신용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거주하는 공생주거형, ④ 마을을 형상화하거나 마을 혹은 지역 속에서 공생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형식인 공생마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8]** Categorization through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inkage

구분		특징
프로그램연계	FE, SO	생활 및 케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서의 계속거주를 기본으로 하여 ①생활지원 및 방문간호-②주간보호 및 단기체류-③그룹홈 및 요양시설입소와 같은 포괄적인 연계시스템을 지역 내에 확보하여 환경이행(Relocation)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는 형식
일시적 교류	HY	어린이시설을 노인주거 및 시설에 인접 혹은 함께 설치하여 사회적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노인들만이 격리되는 시설의 부정적 측면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바꾸어 궁극적으로는 다세대공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형식
공생주거	NM, DM, BN	그룹홈 혹은 요양시설에 젊은 세대 혹은 가족실을 함께 설치하거나 노인주거에 가족실을 설치하여 노인들만의 생활공간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열린 지역교류공간 및 장치를 통해 공생마을을 지향하는 형식

구 분		특 징
공생 마을	SM, GM	마을을 형상화하거나 마을을 만들어 노인주거를 포함하는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어린이시설, 전통문화시설, 집회시설, 외부 오픈스페이스 및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부지내에 설치하여 마을 차원에서의 공생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형식

### 4-3. Synthesis of Analysis

아이치현(愛知県)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요소들과 시설의 특징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연계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종합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SO시설을 제외한 조사대상 대부분의 시설들이 카페를 포함한 지역교류공간과 다양한 교류장치 및 프로그램을 거주 노인들과 지역 및 지역의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2) 복합화를 통해 교류 및 공생을 모색하고 있는 시설은 ① 신규인가 및 설치가 용이한 시설들 간의 복합(NM) ② 시설에 주거기능의 병설(NM, SM, DM) ③ 타 시설(어린이시설)과의 복합(HY, GM) 등으로 나타났다.

3) 다세대교류 및 공생의 특징으로 ① 젊은 세대 및 어린이들과의 교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생개념을 도입한 사례는 SO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② 고령자주거를 시설에 병설하여 교류 및 지역과의 관계를 개선(FE, SM, GM)하거나 고령자주거 및 그룹 홈의 상부에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위한 주거공간과 단신용 주거공간을 배치하는 형식(NM, DM, BN) ③ 지역에 소규모시설을 분산배치(FE)하거나 시설 및 마을 내에 다양한 세대의 시설구성을 통해 다세대공생을 실현하는 시설 혹은 마을(SM, GM)이다.

4) 또한, 지역연계가 갖는 특성에 따라 조사시설을 종합하면 ① 프로그램연계형(FE, SO), ② 일시적 교류형(HY), ③ 공생주거형(NM, DM, BN), ④ 공생마을형(SM, GM)으로 구분되었다.

### 5. Conclusion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주거중심의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지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중시되는 가운데 거주노인 및 시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치현(愛知県)에 위치하는 8개시설의 사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지역연계특성은

1) 시설·공간·장치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교류,

2) 다세대교류를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설의 복합화 혹은 복지마을형성을 통한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강화와 확대.

3) 공생사회구현을 위한 마을개념의 시설형성이나 공생주거의 형성 등으로 실현되고 있었다.(4-3 참조)

지역연계는 노인주거 및 시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향상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시설들이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낯설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노인시설 입소자들을 고려할 때 아이치현의 지역연계 특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References

Ageing in Place(地域居住)と高齢者住宅-日本とデンマークの実証的比較研究、松岡洋子、新評論、2011.  
건축이론의 창조, Jon Lang저 조철희역, 도서출판국제, 1996.  
建築計画·設計シリーズ15-高齢者複合施設, 浅沼由紀 外, 市ヶ谷出版社, 2002.  
超高齢社会の福祉居住環境, 児玉桂子編集, 中央法規, 2008.  
施設から住まいへ, 井上由紀子 外, 厚生科学研究所, 2007.  
高齢者福祉施策の現状と動向, 厚生労働省老健局, 2008.  
日本の将来推計人口,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2.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厚生労働省, 2013.  
スウェーデン「住み続ける」社会のデザイン, 水村容子, 彰国社, 2014.

접수 : 2017년 11월 14일  
1차 심사완료 : 2017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02일  
3인 익명심사 필